metro
메트로 2013년 9월 10일 화요일

Entertainment p/16
옷 아홉 겹이나 껴입고 사투

Sports p/21
효자종목 레슬링 돌아왔다

전두환 오늘 추징금 납부 발표
NEWS p/02

25분에 한 번꼴 성범죄 터진다
NEWS p/03

NEWS p/04

베가 예쁜 '미복그룹' 소시

metro

메트로 2013년 9월 10일 화요일

좌완 커쇼 상대 100% 출루

누가 요즘이 '보조금 빙하기'래?

갤럭시노트3 출시·추석 대목 앞두고 다시 들썩들썩

'갤노트2' 보조금 30만~32만원 지급 공공연 아이폰5는 약정 따라 7만원 돌려주는 곳도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석을 앞둔 데다 삼성 '갤럭시노트3', 애플 '아이폰5S' '아이폰5C' 등 인기 스마트폰 출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기존 단말기 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휴대전화 대리점,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등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오프라인 휴대전화 대리점에선 출고가 99만원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에 32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기본 22만원 보조금에 10만원의 특별보조금이라는 명목을 더했다. 특히 대리점에선 방통위 제재를 의식한 듯 소비자에게 10만원이라는 특별보조금은 한시 지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을 넘어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 특별보조금 등 편법 난무

대리점 직원은 "방통위 제재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추석 대목인 데다 26일 갤럭시노트3 출시를 앞두고 보조금 지급이 더 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이 대리점에선 갤럭시S4 역시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 반면 LG전자의 '옵티머스G 프로'는 특판 가격에 제공된다며 39만원의 보조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출고가 85만8000원인 옵티머스G 프로의 경우 46만8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했다.

9일 한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 아이폰5의 가격이 -7만1000원으로 게재돼 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 역시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어선 보조금이 만연하다. 한 온라인 휴대전화 가입 사이트에선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할 경우 '갤럭시노트2'에 기본 보조금 30만원을 쇼핑몰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했다. 'LTE전국민무한69' 요금제를 24개월 약정으로 이용할 경우 요금제 할인에 더해 22만8000원에 단말기 구입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이 추석과 갤럭시노트3 등 인기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또다시 출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9일 광화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시민들이 가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손진영기자 son@

더 나아가 애플 '아이폰5'의 경우 39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LTE전국민무한69 요금제를 24개월 약정으로 이용하면 보조금에 요금제 할인을 더해 7만1000원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아이폰5 등 일부 휴대전화가 일명 '버스폰'(버스 요금만 내면 누구나 갈아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은 은어)을 넘어 '마이너스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방통위 "적발 땐 강력 제재"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혹은 새로운 단말기 출시 등을 앞두고 기존 재고 처분을 위해 과다 보조금이 성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매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만일 과다 보조금 지급이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지난 5~6월 진행했던 2차 시장조사 결과 역시 함께 거론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재현기자 [illegible]

추석 연휴에도 서울 심야버스 달린다

한과공장 바쁜 손길 강원 횡성군 한과 영농조합 회원들이 추석을 열흘 앞둔 9일 주문량을 채우기 위해 바쁜 일손을 놀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교통대책 추진 12일부터 7개노선 추가 운행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물가·교통 등 7대 분야 종합 대책을 마련해 13일부터 23일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귀성·귀경, 성묘객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7일부터 22일까지 매일 16만여 명의 귀성·귀경객을 수송하기 위해 고속·시외버스를 기존 4898회에서 6131회로 증편 운행한다.

귀경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과 21일 시내버스는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과 시간을 기준, 지하철은 종점 도착 시간 기준으로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서울시는 유인물과 전광판, 언내방송, 24시간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성묘객 방문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용미리·망우리 등 서울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버스 노선을 평소보다 84회 증편하기로 했다. 용미리 묘지의 경우 4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12일 도입하는 심야 올빼미버스(밤 12시~오전 5시) 9개 노선, 심야전용택시(오후 9시~익일 오전 9시) 1700대 등 운행을 통해 서울시는 심야에도 끊기지 않는 24시간 대중교통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긴 장마·폭염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비해 제수용식 주요 7개 품목을 최근 3년 평균 반입량보다 10% 늘려 추가 공급한다.

자치구별로 10~13일에는 직판장과 구청광장 직거래 장터 등에서도 제수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비상시를 대비해 당직의료기관은 9967곳, 당번 약국은 1만7322곳이 문을 연다.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확인은 당번 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를 통해 가능하다. /김유리기자 [illegible]

전두환 살고있는 연희동 사저도 매각

연희동 몰려든 취재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자진납부 계획을 1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취재진들이 9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몰려들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남 재국씨 오늘 추징금 납부계획 발표…자식들 분납 합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에 이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이 16년 만에 최종 환수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장남 재국씨가 가족 대표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 당사자인 전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는 이와 함께 대국민 사과 성명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씨 일가는 지난 4, 6일 두 차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장남 재국씨 거주지에서 가족회의를 열고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가 납부해야 할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총 1672억원이다.

전씨는 추징금 납부를 위해 거주 중인 서울 연희동 전씨 자택은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씨 일가는 현재 검찰에 압류된 경기도 오산, 서울 한남동 땅 등 부동산을 포기하고 나머지 돈은 재국씨 약 700억원, 차남 재용씨 약 500억원, 삼남 재만씨 약 200억원, 장녀 효선씨 40억원 등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이기자 grace1044@metroseoul.co.kr

'200만명 시대' 알뜰폰 어디서 사나요

기자 수첩
이재웅
<경제산업부 기자>

알뜰폰(MVNO)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사업자들은 여전히 웃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 규모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비하면 초라한 데다 성장 기업 역시 일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업체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가입자 21만 명에 불과했던 CJ헬로비전은 8월 말 기준 48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대부분 가입자가 소폭 증가하거나 정체 수준에 그치며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도매대가 인하, 우체국 등 유통 채널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 같은 정책이 중소 알뜰폰 업체까지 함께 성장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달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사람들이 알뜰폰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문제"라며 "알뜰폰 수탁 판매를 하고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마저도 알뜰폰은 권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알뜰폰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편의점·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이조차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홍보와 판매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알뜰폰과 가격만 무작정 낮추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할지 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봐야 할 때다.

절보다 잠 추석을 앞두고 한복을 차려입은 한 어린이가 9일 서울 권선동 농협 하나로클럽 이벤트홀에서 차례상 앞에서 절하는 법을 배우던 중 하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뱅킹 본인확인 깐깐해진다

26일부터 지정된 단말기만 이용…미지정 단말기는 문자메시지 인증 거쳐야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가 26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거나 전자금융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PT)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26일부터는 이들 수단 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집전화로 자동응답(ARS)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은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오는 26일 전에 은행에 알려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 해외 이용 고객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인증번호를 받아도 된다.

◆ 변경된 휴대폰 번호 등록해야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되는 것은 신·변종 전자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 금감원 등은 지난달 29일 합동 경보까지 발령했다"고 전했다. /김민욱기자 minwk@

한·베트남 정상회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주석궁에서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과 공동 기자회견 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의 날 퀴즈 풀면 경품

국방부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단은 지난 5일부터 시작한 국군의 날 기념 온라인 퀴즈 이벤트인 '퀴즈의 신 국군과 함께하라'를 블로그(koreanarmed.tistory.com)를 통해 27일까지 실시한다. 국군 관련 퀴즈를 풀고 80점이 넘는 응모자에게 당첨의 기회를 주는데 당첨자 1001명을 대상으로 노트북, 외식상품권, 영화관람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

전통시장 5곳 할인이벤트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3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2013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 시장은 독산동 남문시장·우시장, 시흥동 현대시장, 대명여울빛거리·은행나무시장 등 5곳으로 제수용품 할인 판매 및 주민 참여 이벤트, 경품 추첨 등 행사를 진행한다. /김승리기자

택시 안심귀가 내년부터 NFC 활용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카드 안심 귀가 서비스를 보완, 심야 시간 택시 이용 안전도를 높인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해 택시 승하차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된 보호자 전화번호로 택시 회사명·차량 번호·지고지 연락처·승차 시간 등을 문자로 보내는 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교통카드 안심 귀가 서비스는 미리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후불 교통카드가 적용되지 않는 등 불편함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교통카드 안심 귀가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1년 2974명, 2012년 1만4582명, 2013년 현재 5만5893명으로 전체 택시 이용자 수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단 현재 NFC는 일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하는 약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시스템 적용 방식을 검토하고 최대한 많은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NFC 방식을 개선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다산왕 장순이 16번째 새끼 출산 에버랜드는 사파리 '로스트 밸리'의 암컷 기린 '장순이'가 지난 6일 16번째 암컷 새끼를 낳았다고 9일 밝혔다. 장순이는 이로써 세계 동물원 소재 기린 가운데 가장 새끼를 많이 낳은 기린이 됐다. /에버랜드 제공

임플란트 1개 458만원 vs 100만원

MRI 등 병원따라 5배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MRI) 임플란트 트봇수술 가격이 병원에 따라 많게는 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43개 상급종합병원과 5개 치과병원의 ▲MRI 진단료 ▲치과 임플란트료 ▲나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 검사료 등 4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뇌혈관 MRI 진단료의 경우 가장 비싼 곳의 가격은 72만원으로 최저 수준(28만원)의 2.6배에 달했으며 치아 1개당 소요되는 임플란트 수술 보철료 최고 값은 458만2000원으로 가장 싼 병원(100만원)의 무려 4.6배였다.

또 다빈치로봇수술(갑상선-전립선암) 비용은 5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로 다양했으며 기형아 검사 등에 필요한 양수염색체 검사료는 31만4000원에서 98만원까지 3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황재용기자 hrsu@

클라라 "닭고기·계란 많이 드세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1회 구구데이 페스티벌'에서 홍보대사 클라라(오른쪽 둘째)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손진영기자

채동욱 총장 "혼외자식? 유전자 검사라도 받겠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 자식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9일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도 할 용의가 있다"며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 요청과 함께 소송 제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6일·9일자 신문에서 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고 아이의 학교 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서울여자간호대 정부지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의 2013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은 비학위 전문가 과정으로 전국 13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서울여자간호대학은 노인 특화 취·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일반인 대상 강좌는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 과정과 실버 활력 놀이지도사 심화 과정, 간호사·사회복지사·의사 등 면허·자격증 소지자 대상은 노인건강코디네이터 과정, 치매관리사 과정, 노인시설경영자 과정 등 총 5개 강좌를 개설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최초의 신도시 화성 완공

1796년(정조 20년) 9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 화성이 공사 2년 반의 공사로 완공됐다. 총 길이 5.7km에 이르는 화성은 다산 정약용이 정조의 명을 받아 축성의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감독해 우리나라 성곽의 백미로 꼽히는 건축물이다.

25분에 한번꼴 성범죄

강간·강제추행 매년 급증
살인·강도는 갈수록 줄어

올해 살인, 강도 등 이른바 5대 범죄가 54초 만에 한 번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5대 범죄 범죄시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는 총 33만9166건이었다.

범죄시계는 범죄가 종류별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로, 발생된 사건의 수를 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범죄 종류별로는 폭력이 16만2940건으로 1분52초마다 1건꼴로 발생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16만2267건)는 1분53초마다 1건이 발생해 폭력과 비슷했으며 강간·강제추행(1만2234건) 25분12초, 강도(1200건) 6시간14분24초, 살인(545건) 9시간20분24초 순이었다.

국화 심는 '스파이더맨' 어린이들이 9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랑천 둔치 야생꽃밭에서 열린 '고사리손으로 꽃 가꾸기' 행사에 참여, 국화 등 가을꽃 3종을 심고 있다. /뉴시스

전체 5대 범죄 발생 빈도는 2010년 54초당 1건에서 2011년 51초당 1건, 2012년 50.4초당 1건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현재 들어 54초당 1건으로 다시 낮아졌다.

살인과 강도는 2009년 이후 빈도가 계속 낮아진 반면 강간·강제추행은 신고 증가 등에 따라, 절도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관련 범죄 증가 등 이유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5대 범죄의 발생 빈도는 국민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주는 지표"라며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4대 사회악 척결도 중요하지만 그 밖의 범죄 예방이 외면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grace7@metroseoul.co.kr

허준의 손길 느끼며 '40일 간의 힐링'

강서구 의성제 허준축제 열려

동의보감 발간 400돌 기념 내달 13일까지 대향연 펼쳐 2km 구간에 '테마등' 장관

내달 12~13일 하이라이트 400인분 약초비빔밥 행사 에일리·케이윌 콘서트도

지난해 허준축제에서 허준 일대기를 담은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올해 거리퍼레이드는 허준 축제 하이라이트 첫날인 다음달 12일 열린다. /강서구청 제공

허준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허준 테마 등이 지난 6일 설치돼 허준로 일대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위). 지난해 축제기간 허준 추모제례가 구암공원 허준 동상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올해 제례는 다음달 13일 같은 자리에서 열린다(가운데).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약초비빔밥 나눔행사'. 올해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400인분 나눔행사로 열린다. /강서구청 제공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한 '허준축제'가 열린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0일간 허준축제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강서구는 동의보감을 쉬열한 허준 출생지이며 동의보감이 집필된 곳이기도 하다. 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한방허브도시 이미지를 강조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축제는 지난 6일 허준 테마등 점등식으로 시작됐다. 허준 테마 등은 40일간 허준로 일대 2km 구간을 밝히게 된다.

구는 전통문화 예술 공연, 연주회, 뮤지컬 공연, 동의보감 특별전, 제14회 의성 허준축제 등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도 마련했다.

남성 합창단 '프리모 칸타테' 공연(13일 오후 7시30분~구민회관), 전통문화 공연 '풍류 2013'(14, 28일 각각 오후 4시 우장근린공원 야외 무대), 국악 한마당 '어절씨구 2013'(27일 오후 7시30분~구민회관), 전국 아마추어 기타리니아 경연대회(28일~구민회관·주최 공덕문화재단) 등이 개최된다.

또 서울시뮤지컬단의 청소년 뮤지컬 '꼬기살'(10월 5일 오후 2·7시~구민회관)이 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해 열린다. 관람을 원하면 강서문화관광 사이트(www.gangseo.seoul.kr/site/munhwa)를 통해 사전 예약(관람료 성인 1만원·학생 5000원)하면 된다.

구민들이 참여해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KBS 전국노래자랑'(방화근린공원)도 다음달 9일 열려 축제의 흥을 돋운다.

이번 축제의 주제인 동의보감을 살펴볼 수 있는 동의보감 특별전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허준박물관에서 펼쳐진다.

◆ 가양동 소재 구암공원 일대에서 열려

허준축제 하이라이트는 다음달 12일부터 이틀 동안 가양동 소재 구암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400인분 약초 비빔밥 나눔 행사'(12일 오후 12시30분·구암공원 무대), 허준 테마 그림이 그려진 400개 미음연 날리기 등 행사를 준비했다.

이 밖에도 동아리 예술 공연, 가수 에일리·케이윌 등이 출연하는 열정콘서트, 허준 추모제례, 약선 요리대전, 허준 마당극, 허준 슈퍼콘서트 등이 관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축제 기간 동안 한의학 국제 학술대회와 한방 무료 진료 등을 진행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노현송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 행사와 400주년의 의미를 담은 테마 행사를 통해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한방허브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이 축제는 허준 선생의 출생지이면서 동의보감을 집필한 이곳 강서 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02)2600-6456

/김종석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암보험만 들어놨는데
중년 3대 큰병이라...
눈 앞이 깜깜하시죠?

metro Russia

Драться будут стенка на стенку

Противоборство вышло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На смену уличным дракам пришел командный бой

Новая ступень эволюции

metro Norway

엘크고기 먹으면 지능지수 저하 우려

엘크(유럽·아시아에 서식하는 큰 사슴 종류) 고기가 사람의 아이큐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르웨이 식품 연구소 마일쉬벳의 게시판 스빈툰란드는 스위덴 TV 방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일쉬벳은 그 근거로 엘크 사냥 후 몸에 박힌 총알에서 나오는 납 성분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것. 그는 "무엇보다 엘크를 갈아서 만든 고기가 위험하며 7세 이하의 아이나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가장 해롭다"고 전했다.

metro HongKong

개념없는 중국부모 지하철서도 "쉬~"

최근 중국 지하철과 시내버스에서 자녀들에게 볼일을 보도록 한 몰상식한 부모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8월 석하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던 여성은 열차 문이 열리자 아이에게 소변을 보게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엔 남성은 아이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버스운전석 쪽 화장실로 안내했다. 이 남성은 승객 중 한 명이 항의하자 주먹까지 휘둘렀다. 많은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며 개념 상실 부모들을 질타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다.

metro Mexico

멕시코의 9월 유언장 쓰는달

한국에서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멕시코에서 9월은 어떤 달일까?

최근 멕시코시티가 9월을 '유언장 작성의 달'로 지정해 화제다.

멕시코시티 공증인 조합과 멕시코시티 의회, 멕시코시티시 당국은 9월을 유언장 작성의 달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유언장 작성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시민들에게 유언장을 쓰라며 시 차원에서 나서 이처럼 대대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세상을 뜬 후 자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길고 지루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아예 없애자는 취지다.

시 당국은 조상의 유산을 두고 가족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 볼썽사나울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연방 공정거래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멕시코 국민들이 유언장을 미리미리 작성하고 이것을 가족 내 문화로 정착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에 따르면 매년 9월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공증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는다. 65세 이상의 멕시코시티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멕시코시티시 정부가 발급하는 식품 보조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멕시코 현행법은 독립된 호적을 소지한 16세 이상의 국민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 상속 대상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반드시 가족 내 구성원일 필요는 없고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도 상속 가능하다.

/하솔라 미가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대2 맞짱' 신종격투기 떴다

무규칙에 여성대결도 있는 '더블 파이트' 러시아서 시범도입 · 2대1 되더라도 '끝장승부'

최근 러시아에서 선수 2명이 팀을 이뤄 경기를 펼치는 신종 복합 격투기 '더블 파이트'가 시범 운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신종 격투기 경기 주최 측인 '힙쇼(Hip Show)'의 대표 도브리냐 세라시모프는 "더블 파이트는 가로 세로 12m의 링 안에서 경기가 펼쳐지며 링 안에 다양한 크기의 블록과 밧줄이 있어 상대편 선수들을 공격하거나 코너로 몰 때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라시모프는 이어 "경기는 2대2 형식으로 시작되지만 경기 중 한 선수가 기권을 하거나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도 경기는 중단되지 않고 나머지 선수가 2대1로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 더블 파이트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만약 양쪽 팀 선수들 모두가 경기 종료 시간까지 남아있다면 심사들의 판정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경기는 없기 때문에 힙쇼는 더블 파이트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무규칙 격투기 '스트렐카'의 심판 바제슬라프 카렐레프는 "더블 파이트 역시 스트렐카와 비슷한 무규칙 격투기 경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체육연합회는 링 밖에서 이뤄지는 경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허용하기 때문에 거리 격투기와 비슷한 스트렐카나 더블 파이트 등이 생겨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라시모프는 "더블 파이트는 2대2 방식 외에도 2대3, 3대3 방식으로도 진행되며 특히 여성 선수들의 경기도 있어 인기가 높다"며 "시범 경기는 다음달 4일에 처음 열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더블 파이트는 힘으로만 싸우는 경기가 아니라 지능과 체력이 필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격투기와 복싱 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힙쇼 측은 더블 파이트가 격투기계의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러시아 무대뿐만 아니라 국제 수준의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야심 찬 목표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를 좀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새로운 규칙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힙쇼 관계자는 밝혔다.

/알렉세이 슈나이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고객님께 드리는 특전!

EVENT 01 주말 상담회 현장할인 최대 60만원!

할인제외 상품: 프리텔, 연합상품, All-in 상품, 허니문팩, 숨림상품 및 특수지역상품

※ 일부 상품은 이벤트에서 제외됩니다

EVENT 02 주말상담 현장 예약 특전!

1. 상담 고객님께 차 or 커피제공
2. 사전 상담 예약 후 방문하여 허니문 계약하시는 고객님께, 영화예매권 2매/필립스 전기포트를 쌍당 1개 증정해 드립니다

하나투어가 만든 웨딩컨설팅 브랜드 H웨딩!

웨딩 & 허니문 One-Stop Service, 웨딩 패키지와 허니문을 한번에 준비하세요!

방문해서 웨딩 상담만 받아도 '포트메리온 포크셋트' or '영화예매권' or '이성근 화백 작품 머그컵'을 드립니다.
(H웨딩 상담 받으신 커플당 3가지 선물 중 택 1)

MOVIE TICKET

H Wedding

wedding.hanatour.com

허니문 상담팀 02)2127-1234

market index

코스피 1974.67 (+19.36)
코스닥 521.11 (-2.45)
금리 2.95 (-0.04)
환율 1086.80 (-6.20)

"ℓ당 67원 더 남기는 SK주유소…소비자 부담"

SK주유소가 경쟁 주유소보다 기름값을 더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석유시장감시단은 9일 SK그룹의 석유 제품 유통 계열사인 SK네트웍스와 SK에너지의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주유소보다 ℓ당 마진을 평균 67원 더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단이 7~8월 국내 휘발유 판매 시장을 조사한 결과 SK네트웍스와 SK에너지 주유소의 유통 비용과 마진은 ℓ당 평균 146.60원으로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오일 주유소의 유통 비용과 마진의 평균인 ℓ당 79.32원보다 67.28원 많았다. 이는 SK에너지가 SK네트웍스에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를 공급한 뒤 다시 SK에너지 주유소에 공급하는 이중 유통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시단은 분석했다.

감시단은 "다른 정유사에 비해 ℓ당 67.28원을 자사 유통 단계에서 추가로 받는 것은 SK 브랜드의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봉준기자 zen@

꿀HD LED TV가 '1인치에 만원' 롯데마트는 9일 전국 65개 점포에서 40인치 풀 HD LED TV를 11일까지 1500대 한정으로 40만원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몸 숨긴 악재 수두룩 "팔고 쉬자"

최장 9일 추석연휴 앞둔 내 주식 지금 팔까 그냥 둘까

외국인 순매수 멈추고 엔화 약세 우려 '부담'

추석 연휴가 아흐레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국내 증시가 대외 변수에 오르락내리락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전에 주식을 팔아 명절자금을 마련하고 느긋하게 연휴를 보낼지 아니면 좀 더 주식을 들고 주가 차익을 노릴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추석 전에 주식을 팔아치우는 편이 낫다"며 "연휴 이후엔 외국인이 순매수 행진을 멈추고 엔화도 다시 약세 추세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미 국내 증시에선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주식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12거래일 동안 3조6402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 개인은 3조92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기관도 지난 5일부터 '팔자'로 돌아서 3거래일간 441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추석 연휴를 끼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 하반기 증시의 불확실성은 큰 편이다.

일부 신흥 아시아 국가의 유동성 이탈과 시리아 사태 등의 대외 악재가 계속되고 있고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에는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FOMC에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정책의 단계적 축소를 시작한다고 발표한다면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로 휴장하는 사이 글로벌 증시가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모처럼 5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는 이번 추석은 그만큼 대외 변수에 갑작스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재만 동양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9월 FOMC 회의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 통화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들어 발표된 고용지표 등에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특히 달러당 원화 환율이 외국인의 태도 변화를 촉발하는 변곡점에 가까워진 점이 우려 요인이다.

조성준 NH농협증권 연구원은 "달러당 원화 환율이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서는 변곡점으로 알려진 1100원 선을 다시 만들면서 환율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화 강세로 일본 증시의 매력이 다시 한국 증시보다 높아진 점도 악재다.

신중호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지난 주말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되면서 엔화 약세가 탄력을 받고 코스피 대비 닛케이지수의 투자 매력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외인 12일째 순매수 코스피 2000까지 '고고!' 9일 코스피는 12일째 이어진 외국인 매수세 덕분에 전 거래일보다 19.36포인트(0.99%) 오른 1974.67로 거래를 마감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093.0원)보다 6.2원 하락한 1086.8원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상장기업 수 6년 만에 최저

● 올해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상장사들의 주가가 평균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95개사 중 분석이 가능한 619개사의 실적과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반기순이익이 증가한 284개사의 주가가 평균 21.41% 상승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LG유플러스, 유니온스틸 등이 눈에 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올 상반기 1조189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주가도 11.26%나 올랐다.

/김현정기자

재형저축펀드 유입금액 '뚝'

● 비과세 혜택을 내세운 재형저축펀드의 자금 유입액이 출시 6개월 만에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재형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55억원으로 지난 3월 99억원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다.

7년 만기 장기 저축 상품으로 실효성이 낮은 데다 원금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진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68개 재형펀드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1.74%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충하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67-2100
독자센터 02)721-9881
2005년 1월 31일 등록 서울특별시 가00258

저소득 가구 평균 71만원 '추석 보너스'

국세청, 77만 대상자에 근로장려금 앞당겨 지급

76만9000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평균 71만원의 '추석 보너스'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02만 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9일부터 이같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인 9월 말에 비해 20일가량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5만2000가구보다 1만7000가구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단독 가구(14만1000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급액은 지난해 6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무자녀 수급자가 44.7%로 전년도에 비해 13.1%포인트 증가하면서 평균 수급액이 줄었고 심사기법 개발로 신청 금액에서 지급이 제외된 금액이 166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4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지만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며 "다만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500만원 이하의 결손 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신청자 269명에게는 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메스 안 댄 첨단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신체를 절개하는 전통적인 외과 수술 외에 고주파 열 치료와 같은 첨단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 보험 가입 기간에 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 만기 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치아 보험과 어린이 보험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상품 개선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중 보험사들은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등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은 첨단 수술도 수술 범위에 포함하도록 약관을 바꿔야 한다.

치아 보험 가입 기간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보장하도록 개선된다. 이 밖에 ▲가입자가 원하면 종신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자동대출납입제도 서비스 종료 시 15일 이내에 안내하며 ▲보험 상품명에 보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im@

특허 딴 금융상품 모여!

시청률 따라 금리오르는 하나은행 '드라마 정기예금' 등 기발한 상품들 눈길

기발한 발명품에만 특허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톡톡 튀고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금융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며 자태를 뽐내고 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금융 상품을 출시한 뒤 특허를 통해 독점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특허 바람은 달라진 영업 환경이 주요 원인이다.

기업 간 치열한 경쟁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상품과 다양한 주제들 결합해 상품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 마니아층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나은행은 드라마 시청률에 따라 금리가 오르는 '드라마 정기예금' 등의 금융 상품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드라마 '구가의 서'의 시청률과 모집 좌수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정기예금 상품을 선보였다. 1차 판매분의 시청률과 모집 좌수가 모두 목표치를 넘어 가입자 전원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11월에도 드라마 '마의'의 연계된 정기예금 상품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하나 드라마 정기예금 마의'는 출시 열흘 만에 판매한도 200억원이 조기 마감됐다.

우리은행도 영화 흥행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시네마 정기예금'을 특허로 등록했다.

국민은행은 스마트폰 금융 상품인 'KB 스마트폰 예·적금'과 'KB드림톡적금'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2009년 출시한 '신한 에스모어포인트 통장'을 특허로 등록한 상태다. 외환은행은 외화 송금 서비스를 특화한 금융 상품을 특허 등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재미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 개발되면서 특허 출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허를 획득하면 고객들의 신뢰도 상승하기 때문에 상품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준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안전검사 통과한 한복 입을래요" 추석을 앞두고 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성수점에서 의류시험연구원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아동한복을 모아 판매하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강덕수 회장, STX조선 대표 사임

박동혁 류정형 부사장 등기이사 선임안 통과

강덕수(63·사진) STX 회장이 결국 물러난다.

STX조선은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권단이 추천한 박동혁 대우조선해양 부사장과 류정형 STX조선 부사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강 회장은 이사회에서 "경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시사로움이 없을 수 없지만 회사를 살리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대승적으로 채권단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히며 사임을 결정했다.

이 안건은 27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강 회장은 1973년 쌍용양회 평사원 출신으로 쌍용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 시절 IMF로 위기에 빠진 쌍용그룹을 인수한 입지적 인물이다. 그는 2001년 STX를 출범시키며 재계 13위까지 사세를 확장했다.

하지만 STX는 2008년 국제 금융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올 봄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강덕수 회장은 이날 영욕의 기업인 생활 40년을 마감하게 됐다.

/박윤희기자 [illegible]@

위례 '에코앤캐슬' 분양 성공

하남시도시개발공사 100% 쾌거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또 축배를 터뜨렸다.

지난 6월부터 청약을 진행한 위례신도시 '에코앤캐슬'이 분양률 100%를 달성했다. 지난 2009년 풍산지구 아이파크를 마지막으로 4년 만에 아파트 분양에 나선 공사는 올해에는 1673세대의 위례신도시 에코앤캐슬에 대한 분양을 성공리에 마쳤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공사가 공급한 에코앤캐슬의 1~3순위 청약 결과, 총 1256가구 모집에서 1358명이 접수하며 평균 1.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사가 건설하는 위례신도시 에코앤캐슬은 올해 상반기 위례지구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 중 유일하게 모든 가구에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적용돼 청약 전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위례신도시 에코앤캐슬은 대단지 친환경 설계 면의 3박자를 두루 갖춘 아파트로 집한다. 청량산을 등지고 주변에 녹지 공간이 풍부해 녹지 조망권을 확보한 데다 1673가구의 대단지 규모에 걸맞게 피트니스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을 포함한 대형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위례신도시의 중심상업단지가 단지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나란히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입주는 오는 2016년 2월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inji@

뉴스 & 뉴스

IT수출액 12개월째 증가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IT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한 145억달러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휴대전화 28.5%, 반도체 22.0%, TV 품목이 40.7%의 증가율을 보이며 IT 수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유로희기자

기업 채용 '나이 제한' 여전

● 9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53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공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2%가 '있다'고 답했다.

비공개 필수 조건 1위는 '나이'(48.6%·복수 응답)가 차지했다.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연령은 남성의 경우 평균 32세, 여성은 평균 31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성별(25.7%), 전공(20.1%), 인턴 등 경력(18.1%), 거주지역(18.1%) 등의 비공개 조건 때문에 구직자를 탈락시킨 기업도 많았다.

/이국명기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후 판매 쉬워진다

앞으로 건설사들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활용 후 판매가 쉬워지고, 분양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세부 방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업체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도입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일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기지 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계에 한해 발급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증해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 시세 대비 최대 90%를 연 2%대의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분양 물량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연 4~5%의 저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후분양 대출보증'이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예정 물량의 분양 시기를 사전에 후분양으로 연기하거나, 준공 후 일정 기간 임대로 활용할 경우 분양가의 10%포인트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 지기자

현대캐피탈 새광고 화제

금융의 해외 진출은 어렵다. '금융의 해외 진출은 쉽다.'

이 같은 상반되는 제시어로 시작하는 현대캐피탈의 신규 기업 이미지 광고 캠페인이 화제다.

단순히 해외 현지에 사무소를 세우고 유학생과 교포만을 상대하는 '흉내 내기 식 글로벌 금융'과의 거리 두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덕분이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상수익을 거둬들이고, 세계적인 금융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명한 실적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시장에 던지는 이 화두는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 상품은 결국 사용하려는 고객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 명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쉬운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내자는 현대캐피탈의 고집 있는 철학도 엿볼 수 있다는 호평도 쏟아지고 있다.

/이국명기자

"귀성길에 타고 싶네" 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더클래스 벤츠 코리아 강서대로 전시장에서 열린 더 뉴 E-클래스 라인업 쿠페(좌)와 카브리올레 모델의 국내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신차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견본카페' 내세워 대박

'헌 인테리어' 최한열 대표 남다른 성공 노하우 공개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월급쟁이로 일하면 워낙 박봉인 데다 사장님으로 변신해도 경쟁이 너무 심해 이래저래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사무실 개업 1년 만에 투자비 두 배를 뽑은 디자이너가 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일하는 최한열(37) 헌 인테리어 대표.

그의 사무실은 10여 평 규모의 카페를 지나야 나온다. 즉 커피와 와인을 파는 카페에 들어온 뒤 별도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야 한다. 카페가 인테리어 사무실을 엄호하고 있는 셈이다.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 분에게는 홍대나 강남, 분당 정자동 일대를 도는 '카페 투어'가 필수입니다. 벤치마킹을 하려는 것인데 눈에 띄는 카페가 있으면 구경하게 마련이죠."

최 대표가 의도적으로 전면에 배치한 '헌 카페'의 존재 이유다. 이곳은 빛바랜 벽돌과 시멘트, 메탈 소재의 천장 라인, 1970년대 때 쓰던 타자기와 미싱 등이 조화를 이루는 빈티지 콘셉트를 기본으로 한다.

최한열 헌 인테리어 대표가 사무실 입구 역할을 하는 카페에서 포즈를 취했다 /헌 인테리어 제공

즉 이 카페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 예비 창업자들은 곧바로 자신의 카페를 설계할 디자이너를 만날 수 있다. 최 대표는 "카페에 들어선 뒤 서너 걸음을 내디디면 그는 이미 고객이 된다"고 강조했다.

'헌 카페'의 디자인에 입소문을 타면서 최 대표는 벌써 6개월치 주문을 확보했다. 디자인이 독특하다는 사실은 어느덧 모델 업계에도 알려져 최 대표는 본의 아니게 모델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 대표는 자신을 돕는 직원들과 상생 함께 가기 위해 이 같은 사업 방식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건설 인테리어는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이때는 월급을 주기 힘들 정도로 수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카페 사업 병행을 생각했다가 사무실과 연결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온 거죠."

10년 전 재능만 믿고 창업에 뛰어들었다 실패한 교훈도 밑거름이 됐다. 그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판로가 없으면 소용없다. 인테리어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판로가 중요한데 이 또한 카페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카톡 '스팸 메시지 링크차단' 서비스

카카오톡이 스팸 차단 기능을 강화한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스팸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바로 연결되지 않고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가 선보이는 '스마트 링크 차단기술' 서비스는 카카오톡 친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악성 온라인 주소 메시지를 받으면 이를 클릭해도 즉시 연결되지 않고 주의 안내창이 먼저 나오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주의 문구를 확인한 후 취소 단추를 누르면 대화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주소라면 확인 단추를 눌러 해당 페이지로 접속하면 된다. 다만 카카오 공식 서비스에서 보낸 메시지에는 주소가 포함돼 있어도 안내창이 뜨지 않는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먼저 적용되며 아이폰용은 이번달 내에 도입된다. /정윤희기자 unique@

V3 사칭 등 스미싱 악성코드 급증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인 스미싱 악성코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보안기업 안랩은 지난해 12월까지 매월 평균 10개 미만으로 발견됐던 스미싱 악성코드가 올해 1월(68개)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8월에만 725개나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견된 악성코드는 모두 2433개로 지난 한 해 동안 발견된 악성코드(29개)의 84배에 달했다. 8월에 발견된 스미싱 악성코드 725개 중 금전 탈취를 노린 체스트 악성코드가 34.8%를 차지했다.

이호웅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안랩 V3모바일 등 정상 앱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바일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장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국현기자 krchoi@

국민 75% "계층상승 힘들다"

● 국민 4명 중 3명은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75.2%가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생활비 부담 증가(35.7%), 기회 불공평(26.2%), 소득 감소(17.8%) 등이 거론됐다.

본인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나' 질문에는 중산층이란 대답이 51.5%, 저소득층은 47.4%의 답변을 보였다. 고소득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0.8%에 그쳤다. /장윤희기자

FashionN

깐깐한 쇼핑플래너

follow 美 2

토요일 밤 11시 제작지원 GS SHOP

t.cast

이 프로그램은 아이티캐스트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눈 홀린 UHD TV 빼곤 첨단 모바일 향연

IFA 2013 폐막… 시선 끈 '손안의 IT제품' 4가지

12일 폐막하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3'이 이름을 바꿔야 할 형편이다. 가전 제품을 알리는 이벤트지만 삼성·LG·소니 등이 첨단 모바일 기기를 앞다퉈 선보이면서 모바일 전시회가 된 까닭이다.

특히 삼성은 떼어져 업계 가운데 최초로 스마트 왓치를 내놓아 애플 추격자에서 시장 리더로 떠올랐다.

다만 가전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까지 가세한 UHD TV 부문에 눈길을 끌었지만 여운을 남기는 제품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다.

이번 IFA의 백미는 삼성이 지난 5일 개최한 '모바일 언팩' 행사였다. 이날 삼성은 '갤럭시노트3'와 '갤럭시기어'를 선보였다.

갤럭시노트3는 풀HD 슈퍼아몰레드 5.7인치 화면에 대용량 3200mAh(밀리암페어시) 배터리를 탑재했다. 그러면서도 두께는 8.3mm로 이전 모델보다 얇아지고 무게는 168g으로 가벼워졌다.

한 번에 두 개의 앱을 사용하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추가된 점도 눈길을 끈다. 챗온 등 메신저에 대화창 두 개를 동시에 켜놓고 한 화면으로는 수신된 메시지를 읽으면서 다른 화면으로는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갤럭시기어는 갤럭시 시리즈와 연동돼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손목시계다. 스피커와 마이크는 시계 바클 부근에 있다.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받으면 갤럭시기어에도 알림이 뜬다. 기어에서 알림을 확인한 직후 스마트폰을 집어들면 '스마트 릴레이' 기능이 활성화돼 그 내용이 스마트폰 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난다.

시곗줄에는 카메라(190만 화소)가 달려있어 사진과 짧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음성 녹음도 할 수 있으며 저장된 음성은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로 전환된다. 갤럭시기어의 디스플레이는 1.63인치 슈퍼 아몰레드이며 무게는 73.8g이다.

LG전자는 태블릿 PC **G패드**를 공개했다. 안드로이드 젤리빈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Q페어' 기능이 강점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일소드롬에서 'IFA 2013' 개막에 앞서 열린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노트3(왼쪽 위)와 2014년형 갤럭시노트10.1,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할 갤럭시기어(아래)를 공개한 후 미디어와 파트너들이 제품을 체험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스마트폰과 10m 이내에서는 와이파이나 테더링을 사용하지 않고도 G패드가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된다. 이 기능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신저·SNS 등이 오면 G패드에도 자동으로 연결돼 내용을 확인하고 답장을 할 수도 있다. 전화 통화는 할 수 없지만 통화 거절 메시지를 보내는 건 가능하다.

소니는 카메라 기능이 뛰어난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1**을 자랑했다.

Z1은 소니의 G렌즈, 엑스모어 RS CMOS 이미지 센서, 비온즈(BIONZ)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을 장착했다. 전면 카메라는 200만, 후면 카메라는 2070만 화소를 자랑한다.

화면 크기는 5인치이고 두께가 8.5mm, 무게는 170g이다. 이 제품에 탈부착할 수 있는 전용 렌즈도 덤으로 선보였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꼼꼼 IT리뷰 – 젠하이저 '모멘텀 온이어'

'헤드폰은 패션' 온몸 입증

젠하이저는 기술이 뛰어난 독일의 오디오 브랜드다. 이미 이어폰과 헤드폰 시장에서 상당수 애호가를 확보하고 있다.

사실 젠하이저뿐 아니라 유명 브랜드의 기기는 성능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저마다 전문 용어와 요소들을 거론하며 최고 제품임을 자랑한다.

오디오 관련 기기 마니아나 소위 '업자'가 아닌 아마추어 소비자 귀에는 다 좋게 들린다.

여기서 이들 브랜드의 고민이 시작된다. 성능 좋고 내구성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인데 차별화가 쉽지 않다.

'모멘텀 온이어'를 보면 젠하이저가 그동안 얼마나 고심했는지 알 수 있다. 일단 이쁘다. 지금까지 나온 헤드폰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나 컬러의 다양성에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헤드 밴드에 쓰인 메탈과 이어 패드의 고급스러운 가죽, 군데군데 들어간 금속 보고는 헤드폰이 더 이상 음악만 듣는 기기이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품이 나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서울 강남의 피트니스센터에는 이 제품을 쓰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디자인과 미를 중요시하는 소비자와 젠하이저의 마음이 통한 셈이다.

리모컨과 마이크가 달린 케이블과 일반 케이블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고, 이 케이블을 본체에 연결했다 분리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 점도 눈에 띈다.

젠하이저는 이 제품을 출시할 때 젊은 모델을 고용해 패션쇼 느낌이 나도록 했다. 그렇다. 헤드폰은 이제 패션이다. 27만9000원. /박성훈기자

카페 가면 반값… 메이크업 무료

이통사 한가위 이벤트 '풍성'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동통신 3사가 보름달만큼 풍성한 한가위 이벤트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T멤버십 T끌 커플' 서비스 혜택을 늘린다.

이달 'T멤버십 T끌 커플' 가입 고객들은 추가 할인 한도 1만 점을 받으며 주요 번화가 인기 카페와 레스토랑 29곳을 반값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T끌 멤버십'은 필름·T스토어, 호핀 콘텐츠를 반값으로 감상하게 하며 커플 멤버십은 연인 데이트 코스인 영화·공연을 두 배 혜택으로 즐기게 하는 서비스다.

KT는 추석 꽃단장을 돕는 메이크업 이벤트를 연다.

KT는 올레클럽 고객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전문업체와 제휴한 가을맞이 뷰티클래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특별한 날 전문 메이크업을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성형 메이크업과 웨딩 메이크업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이용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의 CC 베이스 크림도 증정한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 및 디지털 가전 홈보이 구입 고객 500명에게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벌인다.

인터넷 서비스를 공식 온라인 쇼핑몰 U+숍에서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고, 라쿠파 고급 동신 가방이나 외식 상품권 중 택일해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도 30일까지 진행한다.

이통 3사의 자세한 한가위 이벤트는 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희기자 unique@

5인치 넘는 스마트폰, 한국인에겐 불편

화면 크기가 5인치 이상인 스마트폰이 한국인에게 불편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9일 인간공학 전문가들이 구축한 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손목에서 엄지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는 성별·연령별로 다르지만 평균 110~120mm다.

예를 들어 20대 남성의 손목과 엄지손가락 끝 사이 평균 길이는 116.63mm였고, 30·40·50대가 각각 117.67·118.32·119.71mm를 기록했다. 60대 이상은 120.05mm였다.

여성은 20대가 평균 110.32mm, 30대가 110.97mm, 40대와 50대가 각각 105.69mm와 112.98mm였고, 60대 이상은 111.17mm로 110mm 언저리였다.

성별·연령별 평균치 가운데 가장 높은 60대 이상 남성의 120.05mm도 인치로 환산하면 약 4.73인치로 5인치보다 다소 모자란다.

인간공학 전문가이자 기술표준원 전문위원인 박성준 남서울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인간공학적으로 봤을 때 5인치 이상 스마트폰이 한국인에게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기자

가을 입술마다 '붉은 퍼레이드'

버건디·자줏빛·장밋빛… 립스틱·틴트 등 신제품 '빨간 유혹'

올가을 여성의 입술이 검붉게 물들고 있다. 뷰티업계는 이번 시즌 '버건디 컬러'에 주목, 다양한 립 메이크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어두운 자주색 또는 오묘한 와인색이라 불리는 버건디 컬러는 화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니스프리는 버건디 컬러에 핑크빛을 더한 '버건디 핑크' 립스틱을 내놨다. 이니스프리는 "버건디 컬러는 평소 소화하기 다소 부담스러운 컬러로 꼽혀왔다"며 "이런 점에서 착안해 누구나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버건디 핑크 컬러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맥은 세련되고 우아한 저녁 만찬 파티에서 영감을 받은 '인덜지 컬렉션'을 선보였다. 자줏빛 컬러 립스틱과 립글로스, 적갈색, 골드 펄 등 3가지 색상의 젤 크림 타입 아이라이너 등으로 구성해 화려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에뛰드하우스의 '로지 틴트 립스'는 장미 꽃잎을 베어 문 듯 매혹적인 입술을 연출해주는 틴트 제품. 버건디 컬러에 장밋빛을 담아낸 버건디 로즈부터 핑크, 리얼 레드까지 8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시세이도의 올가을 주력 립 아이템은 립스틱의 발색력과 립글로스의 광택, 립틴트의 착색력을 동시에 갖춘 리퀴드형 루즈 '락커루즈'. 다섯가지 색상 가운데 브라이트 레드는 발랄하면서도 고혹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올가을 어느 때보다 매끈하게 정리된 피부에 레드나 버건디 컬러로 신비로운 느낌을 살린 립 메이크업이 유행할 것"이라며 "이때 윤기있는 골드 계열로 아이 메이크업을 매치하면 한결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귀띔했다.

/박지원기자 ssy@metroseoul.co.kr

'리복 핏 허브' 롯데백 오픈

리복이 13일 국내 백화점 내 최초로 전국 롯데백화점에 리복 핏 허브(Fit Hub) 매장을 오픈한다.

핏 허브 매장은 리복 신발뿐 아니라 리복이 전개하고 있는 크로스핏 컬렉션을 함께 판매하는 피트니스 콘셉트 스토어다. 실제 체육관을 연상시키는 제품과 집기 메뉴얼 구성으로 타 브랜드와 차별화 했다.

'2015 컬러 트렌드' 세미나

디자인 트렌드 정보업체 인터패션플래닝이 11일 오후 1시와 오후 3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2015 봄·여름 컬러&머티리얼(Color&Material) 트렌드 세미나를 진행한다.

교감을 주제로 색상에 대한 감성적 접근을 통해 다가올 2015년 컬러 트렌드를 제안한다. 컬러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키 컬러, 컬러 체인징 포인트 등 실무에 필요한 컬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www.ifp.co.kr·02)6925-6637 (303)

차분한 톤·포근한 소재… '여름 벗은' 운동화

푸마 '효리 운동화'·아식스 '이종석 워킹화' 새 버전

여름 샌들을 벗고 가을 신발로 갈아 신어야 할 때다. 주요 스포츠 브랜드들이 기존 제품에 톡톡한 소재를 적용한 '가을 운동화'를 잇따라 내놨다. 색상도 계절에 맞게 네이비, 그레이 등 차분한 톤이 주를 이룬다.

푸마는 '효리 운동화'로 불리는 빈티지 러닝화 'TX-3'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다.

가을에 걸맞은 스웨이드와 가죽 소재를 믹스해 클래식한 느낌을 강조했다. 아웃솔에 3cm 정도의 쿠션을 장착해 발바닥에 무리가 가지 않고 굽 효과로 키가 커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다크 그레이, 네이비, 화이트 등 모노톤으로 출시됐다.

아식스는 '하지원·이종석 운동화'로 유명한 워킹화 'GT'에 촉감이 부드러운 세무드 스웨이드 소재를 적용했다.

체리-바이올렛, 그레이-블루 컬러에 각각 포인트 색상을 접목해 평소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다. 밑창 앞부분에는 발의 움직임에 따라 바닥이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소재를 써 착화감이 뛰어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스프리스 구매고객에게 '포니 카드 목걸이' 드려요

스포츠 브랜드 스프리스가 가을을 맞아 구매고객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다.

30일까지 8만원 이상 구매하는 멤버십 고객들을 대상으로 2만9600원 상당의 '포니 카드 목걸이'를 증정한다. 기존 멤버십 고객 외에 현장에서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포니 카드 목걸이는 올가을 유행색이자 포니의 시그니처 컬러인 '빨간색'으로 만들어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다. 또한 앞뒤로 카드 수납이 가능해 실용적이다.

올 추석선물 고민 끝! 라라베시 악마크림 추석이벤트 중!

'악마의 보습', '없어서 못 사는 수분크림'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악마크림'의 라라베시가 지난 5일부터 '꽃보다 이어서 라는 타이틀로 30% 추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그녀에게도 꽃보다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로 시작되는 이번 추석 이벤트는 엄마라는 존재를 '이어서'라는 친근감 있는 애칭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꽃보다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던 이어서이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 새롭게 피워준 꽃 바로 '딸'을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삶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는 감성적 스토리를 담고 있어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했다는 평이다.

라라베시는 추석을 맞아 보습 1위의 완판 제품인 브라질 천연 예바마테차가 함유된 마테 라인 5종 세트를 감각적인 디자인 케이스에 담아 선보인다.

마테 라인 5종 세트는 실키 클렌징·밸런싱 토너·픽토 미스트·멀티 엔센스·마테 자 수분크림으로 구성됐다. 특히 30% 할인 가격으로 5종을 구입할 수 있어 엄마와 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메리트로 세대불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마테 라인 5종은 정제수 대신 세계 3대 차로 불리는 마테차 추출물이 전 제품에 함유돼 있어 가을 햇살 속 자외선의 활성산소가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준다. 브라질 예바 마테잎에는 녹차의 4배에 달하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뿐 아니라 마테 라인 5종을 함께 사용하면 건조한 가을 피부가 건강하고 맑아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는 '꽃보다 이어서' 이벤트는 라라베시 공식 사이트(www.lalavesi.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동그랑땡·잡채… 감쪽 같은 인스턴트

추석 명절요리 부담 덜어주는 시판제품들 눈길

"그냥 사서 편하게 치르면 안 될까?"

몸이 힘든 명절이 반갑기만 하랴. 명절 때마다 주부들은 보다 간소한 상차림을 바란다. 최근 NS홈쇼핑이 콜센터 여직원 6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추석 때 가장 부담되는 것 1위 또한 '음식장만·차례상 차리기'(35%)였다.

신세대 주부들의 마음을 알아챈 듯 최근 식품업계가 '데워서 만들면 되는 시판 제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명절 음식인 동그랑땡은 동글동글 귀엽지만 갖은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다지며 두부를 으깨 일일이 빚어야 하는 작업이 여간 번거롭지 않다. 이 때문에 시판하는 동그랑땡을 찾아보지만 맛이나 재료를 믿고 선뜻 살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았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CJ제일제당 프레시안에선 '도톰 동그랑땡'을 전략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프레시안 박은경 브랜드 매니저는 "차례상에 올려도 손색없게 국산 재료만을 사용해 도톰하게 만드는 등 집에서 직접 정성스럽게 빚은 맛과 외형'에 신경 썼다"고 말했다.

손이 많이 가는 잡채 또한 최근 데워서 먹을 수 있게 판매됐다. 오뚜기 '옛날잡채'는 만드는 순서가 볶자라면과 비슷하다. 면을 끓인 뒤 건더기 수프와 참기름·간장 수프를 넣어 버무리면 된다.

추석 때 먹는 담백한 토란국 역시 도우미 제품이 있다. 뽀얗고 고소한 국물을 만들어주는 '다시다 육수명가'다. 뜨거운 불 앞에서 일일이 육수를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엿기름 가루를 우려낸 물에 밥을 삭혀 만드는 식혜는 '비락식혜 컵'으로 대신할 수 있다. 100% 국산 쌀을 사용한 제품으로 밥알을 잘게 갈아 넣어 차례 이후 아이들이 컵에 담아 수시로 마시기 편하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골든스카이 '한가위 콘서트'

을왕리의 호텔&리조트 19일 나들이가족 손짓

골든스카이 호텔&리조트가 추석 연휴를 맞아 19일 을왕리해수욕장 골든스카이 호텔&리조트 내 야외특설무대에서 특별한 가을 콘서트 '가족사랑 한가위 콘서트'를 개최한다.

방송인 이지연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콘서트에서는 인지환·박강성·유일(첼로)과 서울예술라-소프라노 채미영, 피아니스트 윤강유, 이동기 재즈밴드 등이 출연해 재즈·성악·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설 무대 주변으로 펼쳐지는 서해안의 멋진 풍경은 덤이다.

또 행사장 내에서는 간단한 스낵을 즐길 수 있고 리조트 내부의 골든스카이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현대 한국화 31명 작가전'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골든스카이 호텔&리조트 관계자는 "황금연휴에 무작정 놀러지기보다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번 콘서트를 마련했다"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공연과 함께 풍요의 밤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환기자

'운동 취미' 가족들 위한 선물 가득

온라인몰 아웃도어스 추석기프트대전 진행

온라인 아웃도어 전문 쇼핑몰 아웃도어스는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추석 기프트 대전을 15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전 제품 무료 배송 서비스

이번 기획전은 추석을 맞아 오로빔·스프리스·컬럼비아·캐스팅 등 6개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아웃도어 제품을 1만9900원·2만9900원·3만9900원의 균일가로 판매하고 전 제품을 무료 배송한다.

이와 함께 K2의 에버라스트·포니는 스니커즈 및 러닝화·백팩 등을 최대 60% 할인하고 쇼퍼백과 함께 배송해 선물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브랜드별로 구매 금액에 따라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와일드로즈는 방풍재킷·다운재킷·기능성 티셔츠와 팬츠 등 신용품 등을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고급 등산 양말을 나눠준다.

필 펜텀 고커 역시 골프웨어 제품에 한해 구매 금액대별로 양말·모자·스마트 터치폰을, 레드와 골뜨에서는 구매 금액에 따라 스포츠 윈터백·스카프·트렌치코트를 선물로 제공한다.

아웃도어스 관계자는 "부모님의 건강한 취미를 위해 실용성 높은 선물을 찾고 있다면 아웃도어스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추석 기프트 대전을 이용해보라"고 설명했다. 문의 www.outdoors.co.kr /박지원기자

보성·하동 '남도해양관광열차' 개통

코레일관광개발이 전남 보성군·경남 하동군 등의 지자체 및 코레일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남도해양관광열차(이하 S-트레인)를 10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코레일관광개발은 S-트레인에서 도시락·남도 특산품·커피를 판매하는 '식당실'과 '카페실'은 물론 보성군·하동군과 함께 다양한 차(茶)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례실'(사진)을 운영하게 됐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S-트레인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남도 해양권의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 코스·숙소·먹거리 연계 교통 등 차별화된 창조 관광상품으로 해양 관광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열린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이건태 대표이사와 코레일 곽노상 전남본부장, 최덕율 부산경남본부장, 보성군 정종해 군수, 하동군 조유행 군수가 참석했다. /황재용기자

소문난 '강강술래 추석선물' 택배 주문 급증

온라인몰·전화 신청하면 최대 35% 할인혜택 매력

이번주 추석 선물 택배 마감을 앞두고 외식업체 기업 강강술래에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5만원 미만의 곰탕과 떡갈비를 비롯해 매장 인기 메뉴인 한우불고기와 양념갈비 세트의 인기가 뜨겁다.

강강술래 관계자는 "다양한 선물 세트를 온라인 쇼핑몰과 전화 주문을 통해 최대 35% 할인 판매하고 있어 반응이 아주 좋다"며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빠르고 안전한 배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부제·색소 조미료 등은 일절 넣지 않고 기력 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환절기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900ml·5팩 15인분)는 3만9100원, 소용량 세트(350ml·5팩 10인분)는 2만2900원에 판매된다.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찰진한우떡갈비세트(3박스)는 4만7500원. 아미노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두뇌 활성을 돕고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허약체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흑염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염자란 돈너비아니세트(3박스)는 3만700원에 선보인다.

매장 인기 메뉴인 한우양념불고기1호(1.8kg)는 6만원, 술래양념1호(소양념구이 16대)는 8만원, 술래실속(소양념구이 16대+한우불고기 1.8kg)은 13만원에 살 수 있다. 1+등급 이상 한우를 사용한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장조림 2.4kg)는 14만원에 내놨다. 문의 www.sullamall.com 080-925-9292

저소득층 관절염 줄기세포 무료치료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앓고 있는 질환이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엄홍길휴먼재단이 최근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과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후원 활동을 시작했다.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관절질환이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무릎관절은 퇴행성 변화에 따라 가장 많은 손상을 입는 부위여서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관절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하는 연골이 닳아 생기는 질환으로 손상된 연골을 조기에만 잘 치료해도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연골의 경우 신경세포가 없어 작은 손상에는 통증이 없고 스스로 재생되지도 않는다. 즉 무릎이 시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체중을 싣는 동작을 할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면 연골 손상이 꽤 진행됐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내외에서는 이런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재생술이 등장했다.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어린 세포인 줄기세포를 연골 병변에 주입해 연골로 분화하게끔 만들므로써 다시 재생시키는 원리로 줄기세포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는 성인의 골수, 제대혈(탯줄 혈액), 지방 등에서 채취가 가능하다.

산악人 엄홍길(오른쪽 둘째) 대장과 고용곤(오른쪽) 연세사랑병원장이 줄기세포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산행을 즐기고 있다. 작은 사진은 연세사랑병원 송익수(왼쪽) 행정부장과 엄홍길휴먼재단 홍국선 사무처장.

연세사랑병원-엄홍길휴먼재단 '카티스템' 연골재생 치료 후원 협약

줄기세포 치료는 최신 치료 방법이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일부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싶으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이런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연세사랑병원과 카티스템 무료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엄홍길휴먼재단은 국내에서는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는 휴먼 프로젝트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후원 협약 역시 엄홍길휴먼재단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엄홍길휴먼재단은 이번 후원을 주관하며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또 엄홍길휴먼재단의 파트너인 연세사랑병원 측은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후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 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12년 엄홍길 대장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며 환자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고용곤 병원장, 엄홍길 대장이 무릎관절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함께 청계산 등반에 나서기도 했다.

◆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캠페인 담당자)

-인터넷 신청: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캠페인 팝업창을 통해 신청

특히 연세사랑병원은 세포치료연구소를 설립해 무릎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미 국제학술 무대에서 여러 차례 성과를 발표하며 줄기세포 치료 연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는 "어르신분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이번 후원 협약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재원기자

회식·술약속 없는 추석연휴 '금연 기회'

연초에 많은 이들이 금연을 목표로 했지만 추석을 앞둔 지금도 직장인들에게 금연은 쉽지만은 않은 숙제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5일은 금연에 성공하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최고의 기회다.

염민경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부장은 "추석 연휴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연휴 동안 흡연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연을 위해서는 우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금연을 지지하는 가족을 생각하거나 금연의 이유 등을 고민하며 금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가족들에게 금연 계획을 알리고 금연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금연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금연클리닉은 금연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렵다면 간단히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짜지기 귀성길 장거리 운전과 심한 교통체증 스트레스는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때는 전신 스트레칭과 신축운동으로 구성된 금연체조를 하는 것이 좋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받고
귀성·귀경길 정체스트레스면
전신 스트레칭 등 금연 제조
짜지않은 차례음식도 도움돼

자세한 금연체조 동작은 금연 포털사이트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www.nosmok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흡연 욕구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물이나 차, 견과류 등의 군것질거리도 준비한다.

금연을 하면 연휴 동안 금단 현상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차, 운동 등 담배 피우던 습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금연클리닉에서 받은 금연패치를 붙이거나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한다. 우선 나물류, 흰 생선, 과일, 견과류 등 차례 상차림에 오르는 음식들은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다.

또 연휴에는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금연 결심을 알리고 가족 간 대화와 명절놀이를 함께하며 흡연 생각을 줄인다. '오늘 하루만 더 참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심적 부담감을 조금씩 덜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연휴 동안 금연에 성공했다고 해도 다시 찾아온 지루한 일상과 명절 후유증은 흡연의 유혹이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상담받거나 스마트폰으로 금연 모바일 앱 '금연길라잡이'를 내려받아 활용하면 금연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 /황재용기자 hsnug@metroseoul.co.kr

영유아때 맞은 일부 백신 나이들면 추가 접종 필요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어린이와 성인에게 올바른 접종 정보를 알리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모든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승인받은 백신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백신도 있으므로 영유아기에 접종을 다 마친 성인이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 폐렴구균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표준 접종 간격보다 앞당겨서 접종하면 면역 형성이 잘되지 않고 표준 접종일보다 늦은 접종은 최종 면역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접종 간격에 맞춰 백신을 맞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필수 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 5000원도 국가에서 지원해 전국 어디서나 수두, B형 간염 등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11종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옷 9겹 입고 위협적 군주 연기했죠"

영화 '관상' 수양대군역

이·정·재

송강호, 김혜수, 조정석, 이종석 등 톱스타들이 총출동한 영화 '관상'(11일 개봉)에서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는 단연 이정재(40)의 변신이다. 이리상을 가진 야망가 수양대군을 맡은 그는 영화가 상영된 후 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등장하는데도 다른 배우들을 모두 압도하는 존재감으로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어느덧 마흔, 데뷔 이래로 절정의 연기력을 뽐내고 있는 이정재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 댄디남→이리상 수양 완벽 변신

영화는 얼굴을 통해 앞날을 내다보는 천재 관상가 내경(송강호)이 계유정난(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숙적 김종서를 죽이고 난을 일으킨 사건) 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정재는 이 작품에서 기존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던 중후한 분위기의 수양대군을 야욕과 카리스마가 넘치면서도 기품 있고 매력적인 인물로 재해석했다. 그동안 댄디한 이미지가 강했지만, 극중에서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리상의 얼굴로 위협감을 준다.

"수양을 연기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점이 위협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조차 수양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평소 제 얼굴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요. 게다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송강호 선배나 김종서 역을 맡은 백윤식 선배 앞에서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죠."

자신의 얼굴과는 다른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리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표정을 잡아나갔고, 옷을 아홉 겹이나 껴입어 몸집에서도 위협감을 주고자 했다. 옷의 무게에 나중에는 어깨와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플 정도였다.

몸집 더 크게 보이기 위한 차원
어깨·허리 끊어질정도로 아파
해외언론도 제 열연 반했대요

● 묵직한 존재감… 이젠 다작할 것

작업감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컸다. 뒤늦게 등장하는 수양대군이 관객에게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주느냐에 따라 영화의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정재는 "처음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들었는데 시나리오를 계속 읽어도 수양이 등장하지 않아 황당했었다. 그래도 잘하면 멋있을 것 같았다"고 말하며 웃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해외 영화 전문지인 트위치 필름은 이정재에 대해 "무엇보다 놀라운 연기를 보여준 사람은 올해 최고의 연기 커리어를 보여주고 있는 이정재다. 묵직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누구보다 악의 넘치고 위험한 인물을 표현해내는데, 그가 맡아온 지금까지의 역할 중 최고라 할 만하다"고 극찬을 보냈다.

영화 '하녀'와 '신세계', '도둑들'에 이어 이번 작품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정재는 "예전에는 괜찮은 시나리오가 많지 않고 캐스팅 경쟁도 치열해 일부러 일을 많이 하지 않았고, 본의 아니게 기다린 시간도 많았다"면서 "요새는 작품이 다 워낙 좋아서 앞으로는 일을 많이 할 생각"이라고 의욕을 드러냈다.

앞서 '신세계'의 흥행 성공에 힘입어 속편 출연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완성된 시나리오가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중이다. 물론 당장 신경 쓰는 건 '관상'이다. "스태프들이 추운 겨울에 무거운 장비를 들고 높은 산을 오르며 찍었어요. 이들을 위해서라도 흥행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박동희(mtt)…디자인/…

<다리가 예쁜 그룹> <배가 예쁜 그룹>

'미각그룹' 소시 이젠 '미복그룹'

日 출시 새 싱글 뮤비서 허리·복근 강조 춤 눈길

'미각그룹' 소녀시대가 일본 데뷔 3주년을 맞아 '미복그룹'으로 새로운 매력을 뽐낸다.

이들은 18일 일본에서 여덟 번째 싱글 '갤럭시 슈퍼노바'를 출시한다. 이번 싱글은 '러브 앤 걸스' 이후 3개월 만에 선보이는 것으로, 당시 싱글은 오리콘 주간차트 4위를 기록하며 과거와 비교해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지는 못했다. '갤럭시 슈퍼노바'는 일본 데뷔 3주년을 맞아 음악성과 외형적인 면에서 한층 향상된 매력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소녀시대는 2010년 9월 8일 데뷔 싱글 '지니'를 발표했고, 한 달 뒤 '지'를 연이어 발표하며 '미각그룹'이라는 애칭과 함께 한국 걸그룹 신드롬을 일으켰다.

일본 음반을 유통하는 유니버설 뮤직재팬 홈페이지에 공개된 3분 30초 분량의 뮤직비디오에서 소녀시대는 스키니 컬러 팬츠로 각선미를 살리는 동시에 9명의 멤버 전원이 허리라인과 단단한 복부 근육이 환하게 드러나는 짧은 톱 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니'와 '지'의 안무를 연상시키는 현란한 군무, 빠른 비트에 곁들인 화음, 멤버 전원의 완벽히 다듬은 섹시한 몸매 등으로 일본에서 '제2의 소녀시대 신드롬'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갤럭시 슈퍼노바'는 일본의 진 브랜드 사만사 타바사 진스의 TV CM송으로 사용되고, 소녀시대가 모델로 출연하며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소녀시대는 2월 시작해 7개 도시에서 20회 공연으로 20만 명을 동원한 두 번째 일본투어 실황 DVD를 같은 날 출시한다. 새 싱글과 공연 실황 DVD는 이미 일본 타워레코드 예약판매 차트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유순호기자 sunn@metroseoul.co.kr

'접시닦이 소녀' 박신혜

'상속자들' 촬영모습 공개

배우 박신혜(사진)가 다음달 9일 방영될 SBS 새 수목극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의 한 장면을 공개했다.

극중 가난을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차은상 역을 맡은 그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웨딩홀에서 접시닦이 소녀로 본격적인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현장 관계자는 "허름한 앞치마를 입은 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땀을 흘리며 그릇을 닦고 있는 어색적인 장면을 실감 나게 연기해 웃음을 자아냈다"면서 "첫 촬영임에도 그동안 쌓아왔던 연기력과 철저하게 준비해온 캐릭터 연구로 배역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의 상속자들이 가난하고 평범한 여주인공을 둘러싼 채 벌이는 좌충우돌 로맨스를 담아낸다. '시크릿가든', '신사의 품격' 등 히트 드라마를 쓴 김은숙 작가가 집필을 맡고, 이민호·박신혜·김우빈·크리스탈·강민혁·김지원·박형식 등 젊은 톱스타들이 총출동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진영기자 [illegible]

한국 패션학도 옷 걸친 레이디 가가 패션 아이콘 레이디 가가가 최근 새 앨범 출시에 맞춰 선택한 의상은 한국인 디자이너의 작품이다. 가가에게 선택받은 주인공은 올해 3월 영국의 세인트마틴 칼리지를 석사 과정을 마친 이가연이다. 가가의 전담 스타일리스트인 브랜드 믹스펄어 새 앨범 콘셉트에 맞는 의상을 찾아헤매던 끝에 두 편에 이가연의 졸업작품전을 보고 가가에게 적극 추천했다. 가가는 총 한벌의 의상을 제공받았다.

▶ 벗어도 화제, 입어도 화제인 진정한 패셔니스타 /유순호기자

조용필 11월 일본 콘서트

'가왕' 조용필(사진)이 15년 만에 일본 음반 발매와 함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조용필은 11월 7일 도쿄 국제 포럼홀에서 단독 공연 '헬로 앤 스웨그'를 연다. 다음달 16일 19집 '헬로'의 일본어 버전 발매를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1990년 11개 도시를 도는 투어를 개최한 이후 일본 공연은 처음이다.

'헬로' 일본어 버전에는 국내 음반에 수록된 10곡 외에 2PM의 택연이 피처링한 타이틀곡 '헬로'와 '바운스', '걷고 싶다'의 일본어 버전 등 총 13곡이 수록된다. /유순호기자 sunn@

예전과 '라디오스타' 출연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 출연한다.

그는 11일 방송되는 '나 가왕 산다' 편에 가수 JK 김동욱, 감타, 엠블랙의 지오 등과 함께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신의 예전과 함께 출연해 가인가를 선보인다. 조수미는 "평소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라디오스타'"라며 "성악가 조수미라는 껍질을 벗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가방 디자이너로 맹활약

김재중이 가방 디자이너로 맹활약 중이다.

그는 가방 및 잡화 브랜드 몰디의 가방과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에 참여해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평소 패션과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던 김재중은 제품 디자인과 원단 선택뿐만 아니라 기획회의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 소속사는 "4월 제품이 출시된 후 현재까지 3만 개 이상이 팔려나갔다"며 "면세점 입점 제의를 받고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日 팬미팅 4만8000명 몰려

그룹 2PM이 7~8일 일본 요요기 경기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첫 현지 팬미팅을 개최했다.

야수 아이돌로 불리는 2PM은 멤버별로 캐릭터를 정해 야수라는 콘셉트로 이야기를 꾸며 4만8000여 팬들을 열광시켰다. 준호는 황제충, 닉쿤은 코알라, 찬성은 바나나, 택연은 옥캣, 우영은 병아리, 준케이는 팬더 등의 캐릭터로 변신했다.

3세 연하 사업가와 결혼

방송인 안선영이 다음달 5일 부산에서 세 살 연하인 34세 사업가와 웨딩 마치를 울린다.

소속사는 "이번 예식은 양가 가족과 지인에게 새 출발을 알리고자 인사를 드리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큼 소규모로 진행되며 장소의 특성상 별도 기자회견 없이 비공개로 열린다"고 밝혔다. 안선영과 예비신랑은 예물·예단 혼수 등은 생략했으며 조용하고 경건하게 예식을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 영화계 위기"

12개 영화단체 진상규명 촉구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2개 영화단체가 메가박스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화 제작자 등 12개 영화 단체는 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정체불명의 단체가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영화 상영을 중단한 것은 향후 영화계 전체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영 중지 압박을 가한 보수단체의 정체를 밝힌 후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메가박스 측에 요구하는 한편 수사 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이준익 대표는 "앞으로 영화인들은 스스로 검열하면서 영화를 찍어야 되느냐. 영화감독을 비롯한 창작자들이 자기 검열 압박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장 큰 저해 요소"라고 주장했다.

메가박스는 5일 멀티플렉스 영화관 중 유일하게 전국 24개 관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했지만 일부 단체들이 극장에서 시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7일 상영을 중단했다. /유순호기자 sunoh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딤버레이크> <애플렉>

수재 대학생 vs 악당 인터넷도박 두뇌싸움

범죄스릴러 '히든카드' 개봉

할리우드의 두 매력남이 올가을 한 영화에서 맞붙는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사진 왼쪽)·벤 애플렉(오른쪽) 주연의 범죄 스릴러 '히든카드'가 26일 개봉된다.

이 영화는 학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 도박에 뛰어든 수재 대학생과 도박판을 조종하는 악당의 한판 대결을 그린다.

고 마이클 잭슨의 뒤를 잇는 아이돌 출신의 천재 팝스타로 익숙하지만 최근 들어 연기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팀버레이크는 주인공 리치 역을 맡았다. 극중 리치는 아이비리그에서도 손꼽히는 두뇌를 자랑하지만 학비 부담을 이기다 못해 인터넷 도박에 발을 담근다.

그러나 한 번의 패배로 수중의 돈을 모두 날린 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얽힌 음모와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무작정 코스타리카로 떠난다.

오랜 부진을 딛고 타운·아르고 등을 통해 이제는 실력파 감독으로 확실하게 재기한 애플렉은 처음으로 악역을 맡아 근사한 카리스마를 뽐낸다. 코스타리카를 무대로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사기·뇌물·살인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 아이번으로 변신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악의 기운을 발산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그가 곧 제작에 들어갈 '맨 오브 스틸 2: 배트맨 대 슈퍼맨'(가제)에서 5대 배트맨으로 나서기 전 악당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점에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이들의 사이를 오가는 클럽 파달 레베카로는 '007 퀀텀 오브 솔라스'의 본드걸 출신 젬마 아터튼이 캐스팅됐다. 리치와 아이번의 마음을 동시에 흔들었다 놨다 하는 솜씨로 극에 섹시한 긴장감을 더한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설경구·문소리 '스파이' 주말 박스오피스 1위 올라

코믹 액션물 '스파이'가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9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설경구(사진)·문소리 주연의 '스파이'는 6~8일 전국에서 84만2457명을 불러모아 1위를 차지했다.

할리우드 범죄 스릴러로는 보기 드물게 흥행 순항 중인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은 26만5347명으로 뒤를 이었다. 개봉일인 지난달 22일부터의 전국 누적 관객 수는 269만9544명이나.

이 밖에 '설국열차'는 세 번째 주말을 맞아 흥행 2위를 차지하며 역대 한국 영화 스릴러 흥행 1위에 등극한 '숨바꼭질'은 22만6673명을 보태 전국 누적 관객 수가 550만5628명에 이르렀고, 맷 데이먼 주연의 SF 액션물 '엘리시움'은 20만9768명으로 4위에 자리했다. /조성준기자

날씨

9/10 火 일출 06 10 일몰 18 48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하는 운동은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식사 후 30분가량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이너 없는 디자인 회사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써도 소용없다. 실질적 가격 효과를 주는 마케팅에도 무반응이다. SNS로 묶고 싶은데 미끼만 떼어 간다." 패션기업 임원 A씨가 필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다. 상품이 나쁜 것도 아니고, 프로모션의 아이디어가 재미없지도 않은데 매출은 익은 벼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다. 더 기발한 생각, 보다 모험적인 도전을 외치지만 절망의 메아리만 되돌아오니 대략 난감이다.

이탈리아의 알레시란 회사는 디자인 기업인데 단 한 명의 디자이너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각종 생활용품은 독립적 개인이나 스튜디오의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건축가, 미술가, 패션디자이너 등과의 협업은 계획적이어서 무한한 외부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양과 질을 유지하는 게 비결이다.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알레시의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생활용품과 관련 없는 사람을 참여시켜 자사의 제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한다. 둘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젊은 디자이너와의 워크숍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셋째, 디자인연구소는 외부 디자이너 발굴과 육성을 핵심 업무로 하며 도출된 디자인에 대한 브랜드 정체성 적합 유무 판단에 주력한다.

알레시는 내부 디자인의 한계를 경험했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수익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수용했다. 그 결과 디자인 회사의 심장으로 여겨졌던 디자인부서를 도려냈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 지금의 소비자는 공급자의 수준을 한참 넘어있다. 더 그럴듯한 방법을 찾아낼 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근원적 고찰을 해야 할 때다.

이케아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팔았다"고 고백했다. DIY가 불편을 팔겠다는 이케아의 전략에서 기인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가. 아니라 수긍이 없다면 당신에겐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illegible]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7			3			5	8
	3		2			9		
3						2	8	
5				1				7
	4	8						3
		4			5		9	
8	1			6			4	
					3			

					4			1
			3	5		9	7	
9	6						5	
			8	1				
		3	9		6	2		
				7	3			
	1						3	8
	7	4		8	1			
2			7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보누스
한사 스도쿠 플래티넘 (아이젤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대출받아 낙지 전문점 낼 계획 큰돈 벌 운세 아니니 포기해야

남자 69년 5월 25일 음력

Q 이달 말이니 다음달 초에 낙지전문점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창업자금 6000만원(전통세 투자 3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000만원)이 필요해 아내를 설득 중입니다.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돼 있어 대출을 받으려면 아내가 허락해야 하고 사업자 또한 아내 명의로 할까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서요.

A 요즘은 먹고사는 문제가 옛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진 것 같은데도 실질적 삶의 수준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것은 자신의 복은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이 발현되는 것도 자신의 운기와 휘어 드는 지역과 땅의 기운에 따라 다릅니다. 집터 문제만은 아니며 이것은 자기가 뿌리내리는 곳의 터전과 운에 의해 빛을 발하는데 관리 노릇은 적합하겠으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텃밭이 절지(絶地) 단절되고 추살(秋殺)을 받았습니다. 정사(丁巳) 일주가 고단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녹궁(祿宮)이 막혀 끝내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늘 불만 많고 우울 장례문화 홍보 단체 취업 주천

여자 46년 11월 5일 음력

Q 친정엄마가 사는 걸 힘들어하시고 늘 우울한 데다 매사 불만이 많습니다.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아 사는 게 지겨우신 것 같습니다. 늘 살뜰히 챙겨드리지는 못하지만 챙겨드리고 생겨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년을 현재 환경에서 행복하게 보내실 수 없을까요?

A 도세주옥(淘洗珠玉) 귀중한 구슬을 깨끗이 씻으므로 순수하고 맑은 사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대부분 우울함을 느낍니다. 만족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모친은 이런 성정이 조금 강할 뿐인데 이는 생지에 귀문살(鬼門殺)이 들락거리듯 하는 뒤틀린 상태)이 동하여 운이 바뀌기 전에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주변을 즐겁게 할 수밖에 없으니 어렵더라도 일자리를 갖게 하세요. 전에도 언급했듯이 비영리 재단에 노크를 해보십시오. 한곳을 지정해드린다면 올바른 장례 문화를 홍보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면 일자리도 얻고 4대 보험 혜택도 누리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권해보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0일 (음 8월 6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배우자와 다투겠지만 얻는 게 많다. 60년생 일에 지치면 원점에서 재검토. 72년생 고통 없이 열매 못 얻는다. 84년생 주변 어른에 말씀을 비하지 마라

소 49년생 우울할 땐 고민하지 마라. 61년생 도처에 도우미 있어 든든하다. 73년생 변수 생기면 계획 긴급 수정할 것. 85년생 착각해 오히려 전화위복 기회 된다

호랑이 50년생 이웃 일에 끼어들면 골치 아프다. 62년생 어른에 맞서면 심신만 피곤. 74년생 좋은 성과로 존재감 되찾는다. 86년생 찬밥 더운밥 가릴 때 아니니 명심

토끼 51년생 가는 곳마다 웃음 가득. 63년생 반대하는 감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75년생 하찮은 소리가 커질수록 겸손하라. 87년생 새로운 꿈이 생겨 피가 뜨거워진다

용 52년생 속 채우면 불청객 떠난다. 64년생 내 것이 아니면 눈길도 주지 마라. 76년생 입맛이 당기는 제안에 마음이 흔들린다. 88년생 상사에 맞서면 백전백패

뱀 53년생 극해도 넘어진 사람은 탓지 마라. 65년생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다. 77년생 누가 뭐래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것. 89년생 원하던 답을 얻게 된다

말 42년생 너무 인색하면 외톨이 된다. 54년생 징크스를 깨니 일마다 술술. 66년생 엄살도 적당히 해야 효과 본다. 78년생 행복해지고 싶으면 삶을 소중히 할 것

양 43년생 주도권 쥐겠으니 서두르지 마라. 55년생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67년생 신념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79년생 뜻이 강하면 길이 열린다

원숭이 44년생 배우자와 의견 달라 괴롭다. 56년생 손님 접대는 간소하게 해야 효과 만점. 68년생 경쟁자의 입장 뒤바뀌어 헷갈린다. 80년생 고민 해결되니 걱정 그만

닭 45년생 건강 체크에 신경 써라. 57년생 그늘진 마음엔 웃음꽃이 피지 않는다. 69년생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마라. 81년생 불필요한 경쟁은 포기하는 게 좋다

개 46년생 절실한 소망은 아직 이룰 때 아니니. 58년생 표정이 밝으면 매사 순풍에 돛. 70년생 여우 피하니 늑대가 나타난 격. 82년생 가을 가고 봄 오니 기대하라

돼지 47년생 욕심부려서 고민 만들지 마라. 59년생 재물로 인한 잡음 생긴다. 71년생 변수 생겨 상황 악화돼도 평상심 유지하라. 83년생 지출한 만큼 거둬들인다

레슬링 2020 도쿄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기사회생 …야구는 제외

역대 금 11…효자종목 귀환

체력이 승부 좌우…한국 유리

레슬링이 올림픽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25차 총회에서 202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릴 제32회 하계올림픽의 마지막 정식 종목으로 레슬링을 선정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거쳐 진행된 투표에서 레슬링은 유효표 95표 가운데 49표를 획득했고 야구와 소프트볼은 나란히 24표를 얻었다. 스쿼시는 22표에 그쳤다.

이로써 레슬링은 올 2월 IOC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5개 핵심 종목에서 제외된 지 7개월 만에 올림픽 재입성을 이뤘다.

레슬링은 핵심 종목 탈락 이후

레슬링의 올림픽 재입성이 확정된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레슬링 올림픽 정식 종목 확정 결건 간담회'에서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레슬링연맹(FILA)의 수장을 교체하고 일부 규정을 교체하는 등 쇄신 노력을 기울였다. 또 적대적인 관계인 미국과 이란의 친선경기를 마련하고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이벤트 경기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IOC의 마음을 되돌렸다.

전통의 효자 종목을 잃어버릴 뻔했던 한국도 한숨 돌리게 됐다. 한국 레슬링은 양정모가 건국 이후 첫 금메달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목에 거는 등 이제까지 역대 대회에서 금 11개와 은 11개, 동 13개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세트전 대신 3분 2회전제를 도입하고 패시브 제도를 수정한 새 규칙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대한레슬링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격적으로 바뀐 규칙은 체력이 승부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유리해 최근 치러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자 자유형의 체급이 늘어나면 남자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의 체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대비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고 귀띔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세리나 윌리엄스가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14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빅토리아 아자렌카를 세트 스코어 2-1로 꺾고 2년 연속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 펄쩍 뛰어오르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AP·뉴시스

윌리엄스 US오픈 2연패 스매싱

32세 … 최고령 우승도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US오픈(총 상금 3425만 달러·약 381억원)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랭킹 1위인 윌리엄스는 8일 미국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14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빅토리아 아자렌카(2위·벨라루스)를 세트 스코어 2-1로 꺾고 정상을 지켰다.

이로써 윌리엄스는 US오픈에서만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메이저대회 17번째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또 1981년 9월생으로 이 대회 최고령(32세) 우승의 기록까지 함께 세웠다.

한편 남자 복식 결승에서 레안더 파에스(인도)-라덱 스테파넥(체코)이 알렉산더 페야(오스트리아)-브루노 소아레스(브라질)를 2-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조성준기자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야구는 전쟁이 아니다

오래된 이야기 하나. 1986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시리즈에서 만났다. 시리즈 성적은 4승1패, 해태의 싱거운 승리였다.

그러나 매 경기 격전이었고 팬들까지 가세한 전쟁이었다. 광주 1차전에서 2-0 리드를 이끌던 투수 진동한이 광주 관중이 던진 소주병에 머리를 맞고 교체됐다. 대구 3차전에선 해태가 6-5로 승리한 직후 흥분한 대구 관중들이 해태 선수단 버스에 불을 질렀다. 그 유명한 소주병 사건과 선수단 버스 방화 사건이다.

그런데 그 시절의 사건을 되살리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7일 LG 트윈스를 누르고 승리한 삼성 투수 배영수가 LG 팬에게 폭행을 당했다. 선수와 관중의 이동 경로가 겹치는 야구장 현실이 아쉽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다음날에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그라운드에서 일어났다. LG 투수 레다메스 리즈가 삼성 1번 타자 배영섭의 얼굴을 맞춘 것이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지만 대형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그다음에 삼성의 보복성 투구까지 나왔다.

바뀌어면 리그 우승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두 팀 사이에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제는 선수-선수, 팬-팬 사이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두 팀은 한 경기가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시즌에서도 만날 수 있다. 야구는 야구다. 전쟁이 아니다. 야구만은 그때로 돌아가지는 말자. /OBS 야구해설위원

'특급좌완' 커쇼도 못말려 추신수 100% 출루 달성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 사진)가 메이저리그 최고의 좌완 투수로 꼽히는 클레이튼 커쇼를 출루율 100%를 자랑하며 팀의 4연승을 이끌었다.

추신수는 9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홈경기에서 1타수 1안타 2볼넷과 몸에 맞는 공 1개로 타석에 들어선 4차례 모두 출루했다. /조성준기자